

나주 세지면 ‘축산 악취’ 사라진다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정
국·도비 포함 사업비 50억원 확보
돈사 7동 등 철거 정주여건 개선

나주시가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으로 농촌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산 악취 민원 해소의 물꼬를 댔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세지면 대산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무엇보다 세지면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대규모 돈사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대산지구 내 대산리에는 시설이 노후화된 대규모 돈사 7동(2266.5㎡)이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돈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소재한 용산마을 등 3개 마을과 세지면 소재지까지 약 2km 거리에 걸쳐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나주시는 돈사 7동을 포함해 총 8278㎡(약 2505평)의 부지를 매입해 시설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거 후 부지에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자연 생태복원 기간을 거친 후 주민 의견을 받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돈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철거된다. 사업대상지인 대산리 노후화된 대규모 돈사. <나주시 제공>

영해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내 난개발 요소인 축사, 폐가, 공장 등을 철거 후 부지를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정주환경 회복을 핵심 목적으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2022년 노안면 금안마을, 2023년 문평면 오륜마을, 2024년 봉황면 죽석마을에 이어

2025년 세지면 대산지구까지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단순한 기반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정주여건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돌아오는 농촌, 활기찬 귀농, 귀촌의 중심지로 세지면을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옛 장흥교도소에 문학·관광 융합 콘텐츠 구축 속도 낸다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선정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2개소 조성

장흥군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장흥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확보한 사업비는 옛 장흥교도소에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교육이 결합된 ‘문학강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문학강생 프로젝트는 장흥이 보유한 풍부한 문학 자산과 옛 장흥교도소라는 공간의 역사적 상징성을 융합한 장흥군만의 독창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다.

군은 옛 장흥교도소 내 옛 취사장을 활용해 ‘문학·힐링·자유·사색’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에는 과거의 아들이 갇힌 공간에서 빛과 언어, 이미지로 재탄생한 장흥 문학의 정수와 아름다움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흥군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북캠프도 오는 10월 중 개최한다.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의 자유적 가치와 자유의 의미를 함께 사유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장흥군이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옛 장흥교도소 전경. <장흥군 제공>

청소년들의 1박2일 기록과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돼 교육적 활용도와 콘텐츠 확장성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이번 북캠프 운영을 연차적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해 청소년들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자기 성장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문학강생 프로젝트는 장흥군이 보유한 문학적 자산과 교도소라는 공간의 사회적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장흥을 문학 치유와 인문 여행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천권역 자연·문화·미래를 잇다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착수
생태복원·친수·체류형 공간 개발

함평군이 생태하천 복원과 지역활성화를 아우르는 미래 비전을 담은 ‘함평천권역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에 본격 착수했다.

마스터플랜은 치수(홍수 대응) 기능 강화, 친수(하천 접근성 개선) 공간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자연을 품은 숲길과 생태 네트워크 조성 등 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개발 계획이다.

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예방 등 하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동시에, 산책로와 생태학습 공간 확대, 습지와 자연형 호안 등을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할 전략이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마련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숲길과 녹지 축을 연결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은 마스터플랜을 2026년 상반기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세부 설계와 예산 확보를 거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천 일대를 생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활권으로 재편하고 장기적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군의 구상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자연과 지역이 함께 숨쉬는 미래형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주민들이 걷고 머물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함평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레드망고 스마트팜 관광농원’ 박차

4월 사업 승인 이어 건축 허가

강진군이 반려동물 동반숙소에서 체험형 스마트팜까지 즐길 수 있는 관광농원을 구축, 미래형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강진군은 ㈜정인이엔지니어링 민간투자 240억여 원을 투자해 조성중인 ‘레드망고 스마트팜(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지난 4월 관광농원사업 승인에 더해 6월 건축허가승인까지 이어지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원 8393㎡ 부지에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숙박, 체험, 반려동물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되며 미래형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콘텐츠는 ▲자연친화형 숙소(STAY) ▲웰니스 중심 복합시설(WELLNESS) ▲디지털노마드족을 위한 워크케이션(WORKATION) ▲반려동물 동반관광(Pet+Family) 등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실내 스마트팜 체험장에서는 물고기와 채소가 함께 자라는 친환경 수경재배 시스템이 운영되며, 야외에는 애플망고, 체리, 단감 등 과수 체험 농장과 글램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레드망고 스마트팜 관광농원 조감도.

특히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에는 ICT 기반 팻케어 시스템이 도입되며, 팻 전용 욕조·미용공간·놀이공간 등도 함께 마련된다. 실내 스포츠센터, 라운지형 카페와 오션뷰 레스토랑 등도 조성되어 체류형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이 아닌, 지역 자원과 결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이라며 “다산 정신과 남도의 문화·자연을 접목한 강진형 관광농원이 강진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문화재단, ‘꿈의 스튜디오’ 전남 유일 거점기관 선정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꿈의 스튜디오 시범운영 사업’의 거점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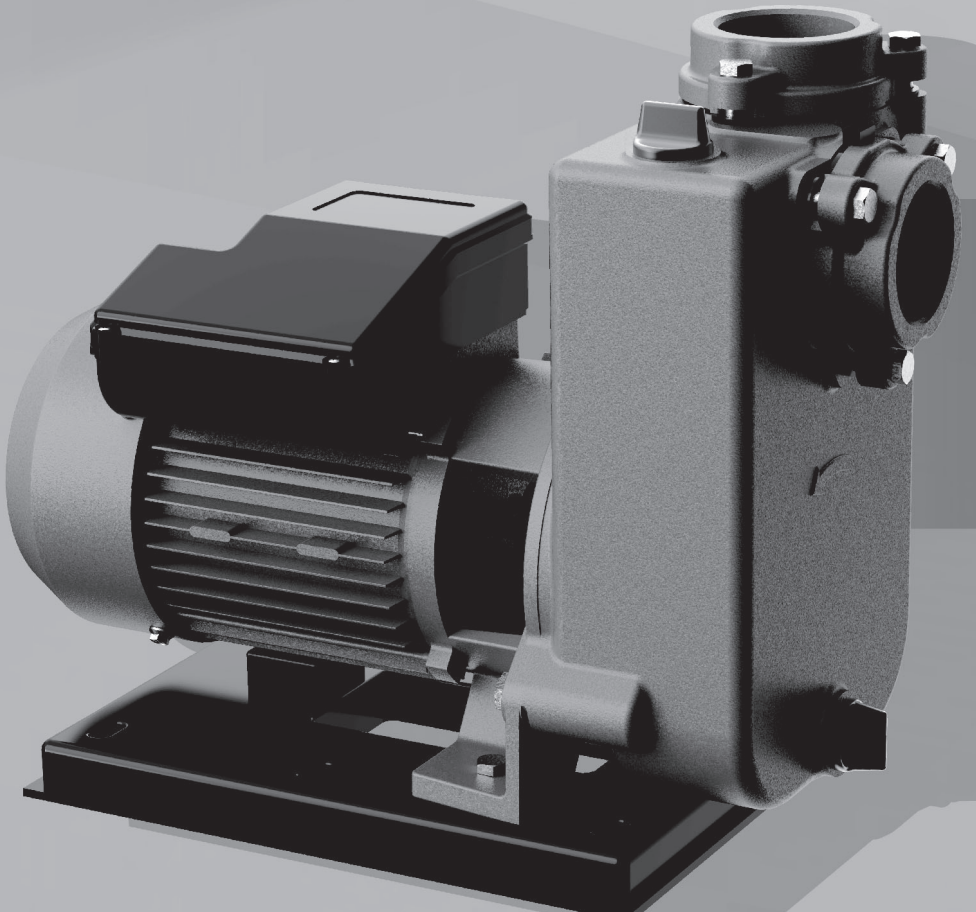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전남권에서 유일하게 꿈의 스튜디오 거점기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선정은 전남 ‘유니크베뉴’(해동문화예술촌, 담빛예술창고)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원 습공간 운영기관’ 은상 수상,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미술여행’ 공모 선정에 이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담양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 6인과 기획자·에듀케이터 2인을 구성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융합형 예술교육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기능보유자인 서신정 작가가 참여해 전통 공예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예술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